

# 전통의 보편성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심곡서원의 전통 만들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분석

김경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행정학 전공  
nkotb517@aks.ac.kr

I. 머리말

II.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설계

IV.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분석

V. 전통의 보편성 논의

VI. 맺음말

이 논문은 〈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 과제〉 ‘한국의 서원(書院): 선비정신을 꽃 피운 인문(人文) 공간’의 연구과정에서 수행됨(AKSR2017-KS04).

# I. 머리말

## 1. 연구배경

전통은 현재를 과거와 엮는 끊임없는 해석에 의해 완전성(integrity)이 확립되는<sup>1)</sup> 사회적 맥락과 시대 상황의 산물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전통을 문화적 정체성을 표상해주는 기호로 다루고,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며, 경우에 따라 정치권력 운용을 위한 도구의 차원에서 전통에 접근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래되거나 물려받은 것으로서 최소한 3세대의 시간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sup>2)</sup>, 이것은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을 전통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 빈번하게 언급되는 전통의 세계화, 전통의 대중화, 전통의 현대화와 같은 수사적 구호는 전통을 확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때 전통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그 가치와 가능성을 보편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보편성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여 그 특질을 도출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서원(書院, Shrine Academy)이 선비정신의 저장소이자 유교문화의 전형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서원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서원은 성리학적 일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집이자 선현을 존송하고 선비를 기르는 일(尊賢養士)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꼽힌다. 그러나 서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여 한편에서는 서원을 옛 신화(myth)로 상징화된 오래된 건축 양식의 하나로 바라보거나 유교문화의 풍경(Confucian-cultural landscape)이자 명상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축소해 이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서원을 새롭게 꾸미거나 복원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면서 단순한 제사 장소 또는 관광 거리의 건축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sup>3)</sup> 더 나아가 서원이

1) Ulrich Beck & Anthony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 Polity*(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64.

2) E. Shils, *Tradition*(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12, p. 15.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성찰적 질문을 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경험적 접근과 실증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전통예술을 논할 때 대개 일상에서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 한국예술의 체질이 무엇이며 그 체질을 뒷받침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sup>4)</sup>하는 등 전통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분석의 미흡함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그렇다면 서원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제공하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통으로 수용되고 있는가. 또한 서원 전통의 보편적 특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의 실마리는 서원의 기능, 서원 공간에 담긴 내용, 그 내용의 전승 방식과 지금에 드러난 모습, 더 나아가 서원의 기원(origin)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추동하는 동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 본래 서원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제향 인물의 생애와 그 사람이 속하였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특정 집단의 기억 방식과 추모 수단에 의해 기념공간으로 탄생하고, 후세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 한 사회의 전통으로 착근된다. 따라서 서원이 조성되는 맥락과 지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서원이 가지는 보편적 특질을 끌어낼 수 있다.

## 2. 연구방향

이 글에서는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timeness),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valueness)을 동시에 함축하며<sup>5)</sup> 지금 시점의 해석을 통해 그 실체를 구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 입각해, 현대적인 면모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도시에 자리한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심곡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제외된 47개 서원 중 하나이고, 조선 중기 문신인 조광조를 배향(配享)이 아닌 주향(主享)하고 있으며, 사액(賜額)을 받은 이래

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예문서원, 2000).

4) 김철준, 「문화전통의 이해」, 『정신문화』 통권 1호(1978), 6쪽.

5) 김정은,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정신문화연구』 39권 4호(2016), 8-37쪽.

터를 옮기지 않았고, 인근에 조광조 묘역이 있어 한 인물과 관련된 연속유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sup>6)</sup> 연구자는 심곡서원의 주인공인 조광조의 삶을 서원 공간과 연결하고, 서원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사적으로 재구성하여 심곡서원의 ‘무엇’이 전통으로서 ‘어떻게’ 착근되었는지를 살피는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라는 단일 사례로부터 서원 전통의 보편적 특질을 추출하고, 전통의 보편성을 다각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제향인물은 서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향인물의 강한 지역적 연고가 우리나라 서원의 특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심곡서원의 주향자인 조광조의 삶의 궤적과 그의 활동 근거지를 주요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둘째, 서원 문화재는 정치적 혼란과 시대적 부침 속에서 복원과 재건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료의 소실과 접근상의 한계 때문에 서원 역사의 전(全) 과정을 재생하기 어렵다는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대안으로 스토리텔링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보편성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개념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각기 다른 차원(dimension)에 따라 보편성의 속성(property)을 도출하고, 이것을 토대로 전통의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I. 선행연구 분석

### 1. 전통의 보편성

전통은 일정한 시간이 축적되고 사회공동체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었을 때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통은 ‘고정되고 영속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큰 프레임 내에서 이어진 것<sup>7)</sup>으로서 정체되어 있는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변화성 있는 시대 문화이자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된 결과이다. 한편 보편성(universality)은 사전적 의미에서 ‘제한

6) 심곡서원, 『심곡서원 고증자료 보고서』(심곡서원, 2013), 32쪽.

7) Jae Hae Lim, "Tradition in Korean Society: Continuity and Change," *Korea Journal*, Vol. 32(3)(1991), p. 14.

(limit)이나 예외(exception) 없는 상황', '전체를 포함하거나 포괄하는 범위', '어디에서든 존재하거나 발생하거나 작동하는 성질'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sup>8)</sup> 즉, 보편성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sup>9)</sup>로, 전통의 보편성은 광범위성(extension), 항상성(constancy), 적용 가능성(adaptability)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의 여부, '두루'의 정도 그리고 '통합'의 범위는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보편성은 전통의 여러 가지 속성의 기저를 이루는 성질로서 보편성을 정의하는 차원(dimension)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공유성·수용성·규범성·공통성·맥락성·확장성·일상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우선, 각기 다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성질을 보편성이라고 할 경우, 보편성은 '공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이 지금 시대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거나 현대사회를 이끄는 사상 또는 원리를 반영한 모습으로 구현되었을 때 '수용성'의 차원에서 보편성을 논한다. 전통은 사람의 이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강요하는 강제력을 지니는 개인 삶의 행동과 판단 기준이다.<sup>10)</sup> 실스(E. Shils)는 전통의 규범성(normativeness)에 대해 사회를 하나의 주어진 형태로 견지하는 관성적 힘 또는 주어진 것에 대한 애착(attachment)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sup>11)</sup>, 이와 같이 전통이 그 전통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행위 준칙으로 작용할 경우, 보편성은 '규범성'을 그 속성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문화는 개별 전통문화에 내재된 공통적 습속의 집체(collection), 즉 '공통성'을 의미한다.<sup>12)</sup> 그러나 전통의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해 보편성을 바라볼 경우, 전통이 "되어가는" 방식에서의 유사점이 보편성으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것은 맥락(context)과 과정(process)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한편 전통의 수용범위 확대를 보편화의 일환으로 본다면 '확장성'이 곧 보편성의 속성이며, 최근에 문화행정 현장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8) 메리엄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com/dictionary/universal)(검색어: universal)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검색어: 보편성)

10) 최소인, 「공통 감각: 규범적 보편성인가 보편화 가능성인가」, 『해석학연구』 12권(2003), 420쪽, 422쪽, 426쪽.

11) E. Shils(1981), 앞의 책, 25쪽, 200쪽.

12) 전라회,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9권 2호(1995), 456쪽.

전통의 대중화도 확장성의 시각에서 전통을 바라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문화의 ‘일상성’ 측면에서도 보편성을 조망해볼 수 있다. 예컨대 오늘날 유교가 기초적인 의식과 생활관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가정윤리, 현세적 삶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상<sup>13)</sup>은 전통이 일상적 삶에 안착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보편성과 대비되는 용어를 통해 보편성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끌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은 추상적인 것으로, 개별성과 고유성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또한 문화의 보편성이 문화의 ‘원형’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반면, 특수성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타 구성원과 차별되는 주체성 또는 정체성이라고 설명한다.<sup>14)</sup> 그러나 고유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본질이 응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므로<sup>15)</sup> 고유성의 기저에는 보편성이 있으며, 보편과 특수는 고착된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고 보완하면서 양립해가는 상보관계이다.<sup>16)</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편성은 국가가 세계 보편문화에 대응한 경험을 발견하였을 때 확인되며, 각 국가의 경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세계문화를 통해 끌어낼 수 있다.<sup>17)</sup> 더 나아가 문화의 보편성을 논할 때 그것은 문화의 본질적인 면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습이나 취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개(별)성과 특수성은 보편성과 대립하지 않으며, 문화가 본질적인 면에서 고찰되는 한 보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8)</sup>

무엇보다 전통의 보편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통이 어떻게 현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교의 합리성’과 같이 전통 속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원리를 끌어내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전통적 요소를 포착하기도 한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 제도를 비교해 지금 드러난 현상이 전통적 요소와 중첩될 때 전통이 존속하여 지금 시대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한다.

13) 이동희, 『유교문화의 전통과 미래』(문사철, 2011).

14) 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層位)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2005), 57쪽.

15) 김인철, 「한국성」, 『건축평단』 통권 4호(2015), 8쪽.

16) 김현구,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 서구보편주의를 넘어 다원보편주의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2017).

17) Yong Bok Koh, "Traditionalism and De-Traditionalism," *Korea Journal*, Vol. 17(5)(1977), p. 40.

18) 백종현, 「개념」, 『철학과 현실』 24권 1호(1995), 300-301쪽.

그러나 전통 이외의 요인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전통이 현재 시점에서 구현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특성을 주조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각 문화 간의 유사성을 전통의 보편화로 단정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 2. 서원 연구 경향

유교 전통을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유교 의식이 이루어지고 유교사상을 재생산하는 서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성을 논하는 데 적합한 대상이다. 서원은 유생들이 강당(講堂)에 모여 학문하는 강학 기능, 사우(祠宇)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드리는 제향 기능을 가지며,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여 향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지역의 지식인들이 출입하여 교류한 공간이자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이기도 하였다. 서원 전통에 대한 경외감은 제향인물에 대한 존경에서 더 나아가 서원에 오랫동안 쌓인 시간과 서원 공간에 수렴된 역사적 의미에서 비롯된다.

심곡서원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서원은 중앙정치와의 강한 연결성을 지녔다. 조선조에 건립된 총 909개의 서원(사우 포함) 중 30%에 해당하는 270개가 사액되었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69개의 서원 중 48개가 사액되어 그 비중이 70%에 육박하며<sup>19)</sup>, 19세기 말엽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12개 서원이 경기도에 분포한다. 더군다나 16세기 중엽에서 19세기 후반까지는 기호학파의 학문 성향과 당색, 지역적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관례화되어<sup>20)</sup> 이 지역의 서원에 지역색이 담기게 되었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개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자 각종 유·무형 자료의 전시관이기 때문에<sup>21)</sup>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서원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스토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유교문화적 특성을 포괄하는 전통의 집체(collection)로

19) 조병로, 「한국 서원의 발달과 그 성격」,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국학자료원, 2004), 24쪽.

20) 최홍규, 「경기지역의 서원 건립 추세와 기호학파의 학맥」,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국학자료원, 2004), 61쪽.

21)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한국서원연합회, 2013), 6쪽.

다루기 때문에 개별 서원의 제도, 문화, 양식 등에 함축된 고유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서원은 보존과 관리에 치중하다보니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람과 환경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원 공간과 제향 인물을 연결하거나 서원 전통의 가치에 주목해 경험적·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서원을 지역 문화자원의 하나로 다루는 경우에도 현재적 활용에 치중하며 서원의 역사성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서원이 학문공동체의 결집처라면 전통의 계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특정 학문과 사상을 매개로 조성된 관계, 즉 학통이다. 학통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로서의 학교라기보다는 유학의 내용이 전수되는 사제(師弟) 관계의 연속성으로<sup>22)</sup>, 지금은 강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어 과거의 지식 네트워크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원의 옛 기능에 천착하여서는 서원 전통에 함축된 보편적 특질을 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서원을 유교문화의 일반으로 다룰 경우, 개별 서원의 고유한 지적 계보와 정신적 자원의 현재적 의미를 충분히 도출하지 못하고, 제향인물과 서원 공간 간의 연계성을 간과하여 서원의 현대적 의미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수반한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경기도 용인에 입지한 심곡서원은 조선 중기 문신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를 주향하는 도학서원(道學書院)이다. 조광조는 관계(官界)에 진출하기 전, 선영(先塋)이 있는 용인에 기거하면서 수학하고 선비 지식인들과 교유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과 국가 운영에 관한 이상향을 설계하였다. 이후 뜻을 펼치기에 유리한 환경에 힘입어 한동안 조정에서 승승장구하였지만,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전라도 능주(綾州, 지금의 화순)에

22)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60-161쪽.



유배되어 사사(賜死)되고, 학포 양팽손(學圃 梁彭孫)<sup>23)</sup>이 묘를 쓴 이듬해 용인 심곡리 언덕으로 이장되었다. 이후 1576년(선조 9), 포은 정몽주를 제향한 죽전서원(竹田書院)에 입향하였다가 1605년(선조 38) 무렵 지금의 서원 자리에 심곡사원을 조성해 위패를 모셔왔고, 1650년(효종 원년)에 심곡(深谷)이라는 사액을 받아 심곡서원이 건립되었다.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옛 제도와 문화 중 상당수는 계승되지 못하고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서원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었다. 심곡서원은 조광조를 추모하는 18개 서원<sup>24)</sup>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 정치적 파란과 시대적 부침 속에서 때로는 변화를 요구받았고, 때로는 자기 보호를 강구하는 가운데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서원 주변이 공동주택단지로서 개발되면서 서원 바로 뒤편까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인근도로는 8차선으로 확장되어 지금은 병풍처럼 둘러진 아파트 건물 사이의 ‘외로운 섬’으로 비유된다.<sup>25)</sup>

본 연구에서는 서원의 주향자인 16세기 인물의 생애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수집 방법도 다각화하였다. 특히 심곡서원은 1987년과 1993년, 두 차례 도난을 당해 관련 문헌이 많이 소실되었고, 건물을 증축·보수하는 과정에서 서원에 대한 충분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23) 양팽손(1488-1545)은 중종대 문장(文章)과 서화(書畵)로 명성을 얻은 문신으로, 1510년 (중종 5) 조광조와 함께 사마시에 응시하여 조광조는 진사사에서, 양팽손은 생원시에서 각각 장원급제를 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처벌되었을 때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서 강력히 항소하다 관직을 삭탈당해 고향인 능주로 내려왔다. 이후 능주로 유배된 조광조와 재회하였고 조광조 사후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상(喪)을 치렀는데, 이것 때문에 자주 흉계(凶計)에 오르자 속세를 멀리한 채 집거하였다.

24) 조광조를 제향하는 서원으로는 도봉서원(道峰書院), 죽림서원(竹林書院), 죽수서원(竹樹書院), 경현서원(景賢書院), 월암서원(月巖書院), 동죽서원(東竹書院)이 있으며, 미원서원지(迷源書院址), 인산서원지(仁山書院址), 정퇴서원지(靜退書院址)에 터가 남아 있다. 또한 북한에도 당덕서원(望德書院), 운전서원(雲田書院), 흥현서원(興賢書院), 도동서원(道東書院), 봉강서원(鳳岡書院), 소현서원(昭賢書院), 정원서원(正源書院), 상현서원(象賢書院), 약봉서원(藥峯書院)이 있다. 용인시, 『용인 심곡서원 고증자료조사』(용인시, 2016), 127-134쪽.

25) 이호일, 『조선의 서원』(가람기획, 2006), 265쪽.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라 서원이 입지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과 주변지역에 주택이 밀집하였다.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된 1996년에는 인구가 27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 들어와 총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5위, 경기도 내 시(市) 중 4위로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 용인문화원, 『용인시 도시 성장과정과 앞으로의 도시 관리방향에 관한 소고』, 『용인문화』 제35호(2015), 26-27쪽.

표1-현지조사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주요 정보원	비고
1차	2017. 6. 22.	심곡서원, 조광조 묘	심곡서원 장의(掌議), 서원 관계자	-
2차	2017. 6. 24.	심곡서원	심곡서원 원장, 장의 등 분향모임 참석자 다수	분향모임
3차	2017. 7. 7.	심곡서원	심곡서원·옥동서원·자운서원 관계자 다수/용인시청 학예사	세계유산 확장등재 추진 관련 회의
4차	2017. 9. 5.	죽수서원, 증리, 적려유허지 (전남 화순군)	문화해설사 2인	-
5차	2017. 10. 29.	수지구청 앞, 심곡서원	정암조광조선생승모선양회 관계자	2017년 정암 문화제
6차	2017. 11. 3.	심곡서원	심곡서원 원장, 장의	분향모임

않아 2차 자료만으로는 통시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6차에 걸쳐 이루어진 현지조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만난 주요 정보원들(key informants)로부터 서원과 제향인물에 관한 이야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서원 전통에 관한 이들의 주관적 해석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래 서사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나 행위를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정한 상태로 배열하는 것인데<sup>26)</sup>, 이 글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늘어놓은 후 분석틀에 따라 이야기 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를 구축하였다.

## 2. 연구방법: 스토리텔링

전통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과정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며 우연이 개입되기도 한다.<sup>27)</sup> 더군다나 현대사에서 반복된 역사적 변곡(historical

26) Elliot G. Mishler, *Research Interviewing: Context and Narrativ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Donald E. Polkinghorne,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Catherine Kohler Riessman, *Narrative Analysis*(Newbury Park: Sage, 1993); Mishler, 윤건수, 「기초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축제: 함평 나비축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권 4호(2006), 82쪽.

27) 조인수, 「한국 전통미술의 재발견」, 전통문화연구소, 『전통-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

curve)<sup>28)</sup>은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된 용어로, 인물과 사건의 형상화를 통해 어떤 스토리와 그 의미, 정서 등을 형성해가는 '의미의 형상화' 작업이다.<sup>29)</sup> 또한 이야기 흐름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상실되는 중간과정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적(heuristic) 기능을 가지며, 전통의 실체를 규정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스토리텔링은 해석된 중심인물의 삶, 도출된 상황맥락을 하나의 구조화된 틀로 제시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중심인물이 처한 사회 및 시대적 배경을 전제하고 등장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함으로써 갈등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재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연구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과정'을 탐구하는 데 실용적이다.<sup>30)</sup> 한편 스토리는 '합리적이라는 느낌과 판단', 즉 개연성(probability)을 토대로 전개된다. 개연성이 갖춰져야 스토리의 그럴듯함이 충족되는데, 그럴듯함(plausibility)은 본래 그럴듯해서라기보다 그럴듯하게 여겨지도록 서술해서 얻은 결과<sup>31)</sup>로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한다.

이 글에서는 전통은 시간의 축적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가치가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현된 가치 함축적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틀로서 표2와 같이 '전통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심곡서원이 전통으로 구조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는 인물, 공간, 시간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이야기 열개가

의 권력』(인물과사상사, 2010), 152쪽.

28) 역사의 흐름상 큰 변화의 지점을 '역사적 단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단절은 역사에 참여하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영국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 때 각국에서 가졌던 체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건국절 제정 논란에서 취해진 상반된 입장 등은 역사를 '계승'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생각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단절'은 '이어져오고 있는 무엇'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 '그 무엇'이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를 가리키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끊어짐'을 뜻하는 '단절'이 아니라 '큰 변화' 또는 '예상 외의 상황'에의 직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단절'이 아닌 '역사적 변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9)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문학과지성사, 2015), 39쪽.

30) 김경은, 「은퇴한 공직자의 리더십 형성요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의 '진화적 리더십'에 대한 스토리텔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권 2호 (2012), 391쪽.

31) 최시한(2015), 앞의 책, 204쪽, 341쪽.

구축된다. 각 시기별 서사(narratives)가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스토리는 서사 간의 상관성과 상황 맥락이 하나로 수렴되어 구조화되는 가운데 완성된다. 서원의 주향자인 조광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중심인물로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거나 타자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된다. 또한 이야기 속 공간은 사건, 상징, 상호작용 등 여러 이야기 항목이 연결되어 줄거리(plot)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에서 의미로 가득 찬 은유적 공간(metaphorical space)으로 발전한다. 한편 인물의 삶과 서원의 정체성은 상징(symbol)으로 표상화된다. 상징은 사물을 다른 매개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상징에는 어떤 것을 표상하는 의미(symbolizing)와 거기에서 유추되는 또 다른 의미(symbolized)가 동시에 드러난다.<sup>32)</sup> 한편 청자(audience)는 이야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통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전통 만들기 주체는 이야기 안의 각각의 항목을 조합해 전통 요소를 창출해내는 주도자로서 이들에 의해 각 시대별 전통 요소가 하나의 상징으로 수렴되어 지금 시대에 이르러 전통이라고 명명된다.

## IV.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분석

### 1.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 구조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는 ‘인물의 생애’, ‘기념의 시대’, ‘전통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각 시대별 줄거리가 다음 단계의 배경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조광조의 삶이 담긴 ‘인물의 생애’는 16세기의 시간적 배경하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과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으로 그려지고, 17세기를 기점으로 서원이 건립되어 사림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성을 획득하는 ‘기념의 시대’가 열리며 지금에 이르러 서원에 전통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전통의 시대로

32) 엄정식, 「상징에 관하여」, 『철학과 현실』 96호(2013), 198-199쪽.

넘어간다.

중심인물인 조광조의 청년 시절의 ‘꿈’과 죽음을 앞둔 ‘비움’의 시간은 용인과 능주의 공간 속에서 ‘인물의 생애’를 형성한다. 한편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지위에 따라 긴장과 갈등 양상이 다르게 그려진다. 주인공의 죽음은 최고조의 긴장(tension)을 유발하여 이때를 기점으로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과 전통 만들기 주체가 변화된다. 즉, 중심인물의 죽음은 전통 만들기 주체가 개인에서 당대 사람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며, 주인공은 이야기의 시발점인 본래의 장소(용인)로 돌아와 기억의 대상으로 상징화되고, 그 기억을 저장·공유·재생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서원이 조성되는 가운데 ‘기념의 시대’가 도래한다. 또한 기념 공간인 서원이 국가에 의한 공식화 절차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권위를 획득하고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 즉 전통으로 자리 잡는 ‘전통의 시대’가 열린다. 이때 이야기의 중심소재인 심곡서원은 도시라는 특유한 공간적 조건 그리고 민주화된 의사결정 방식이 보편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한편 이야기 밖의 청자(audience)는 ‘인물의 생애기’와 ‘기념의 시대’를 과거의 시점으로 바라보며, ‘전통의 시대’에 들어와 현재의 관점을 취하는데, 이것은 전통이 현재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것임을 반영한다.

표2-심곡서원 전통 만들기의 이야기 구조

구분	이야기 항목	전통 만들기			
		인물의 생애 조광조 연대기		기념의 시대 서원 건립기	전통의 시대 의미 창출기
이야기 안	인물 (이야기 주인공)	청년	죽음	회귀	유산
	공간	용인	능주	용인	도시
	상호작용	개혁 vs 반개혁		주류 vs 비주류	거버넌스
	은유(metaphor)	모순의 공간		정치적 공간	협약(協議)의 공간
	상징	꿈	비움	기억	전통
	줄거리(plot)	기(起)	승(承)	전(轉)	결(結)
이야기 밖	청자(audience)의 시점	과거		과거	현재
	전통 만들기 주체	인물		당대 사람들	국가·사회

## 2.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 전개

### 1) 인물의 생애: 조광조 연대기

조선 건국 초 개국공신에 책봉되는 등 가문의 성세를 보이던 한양 조씨는 이후 양주(楊州) 일대에서 세거하였고, 15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들 중 일부가 용인으로 이거해 터를 잡았다. 한양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한양 조씨 가문이 중앙정치에서 비중을 높여가며 활동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sup>33)</sup> 이야기 속의 용인은 조광조의 학문 활동과 관료로서의 생애가 전개된 시간과 점철되고, 그가 죽어서 문헌 주인공의 주요 활동무대이다.

조광조(趙光祖, 1482-1519)는 개국공신 조온(溫)의 5대손으로, 한양에서 부친 조원강(趙元綱)과 모친 여흥(驪興) 민씨(閔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인해 평안도 회천에서 유배 중인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에게 학문을 배웠고, 그 문하에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학자로 성장하였다. 19세 때 부친이 죽자 용인의 아버지 묘 앞에서 시묘살이를 시작한 조광조는 모든 절차를 『주자가례』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지켜, 훗날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그를 가리켜 ‘날마다 가묘(家廟)에 참배(參拜)함에 비바람에도 폐(廢)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34)</sup> 3년 상을 마친 후 선영(先塋) 아래 집을 짓고 머무르면서 광자(狂者), 화태(禍胎)라고 불릴 정도로 학문에 전념하여 그를 사모한 사류(士類)가 가득히 모여들었다. 이후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해 진사(進士)의 자격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34세 때인 1515년(중종 10), 천거를 통해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라는 종6품 관직에 임명되었다. 또한 그해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들어간 데 이어서 사헌부 대사헌에 발탁되는 등 정계에서 승승장구하였다.

조광조는 향약(鄉約)의 보급, 소격서(昭格署) 폐지, 현량과(賢良科) 실

33) 최영준, 『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208-209쪽.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와 지곡리, 역북동에 한양 조씨 동족촌이 형성되어 있다.

34) 1564년에 이황이 쓴 행장(行狀); 조광조 저, 조종업 역, 『정암선생문집(수정재역)』(경인문화사, 2004), 316쪽. 율곡(栗谷)·이이(李珥)는 김굉필·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등과 함께 그를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고 칭하였다.

시, 반정공신위훈(反正功臣僞勳) 삭제 등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면서 그가 품고 있는 개혁사상에 기반하여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그를 두고 ‘조선에 도학(道學)을 세운 정몽주 이후 사림의 영수(領袖)’<sup>35)</sup>, ‘경세지략(經世之略)을 꿈꾸었던 지식인’이자 ‘강력한 개혁정치를 단행한 한국의 마키아벨리’<sup>36)</sup>라고 부른다. 한편 그는 정치적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야심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풍류를 기리는 낭만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지녔다. 조광조와 함께 종종 때 유학자로 이름난 조광보(趙光輔), 조광좌(趙光佐), 이자(李紆)는 농사짓고(耕), 나무하교(薪), 고기를 낚고(釣), 약초를 캐는(菜) 네 가지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사은정(四隱亭)이란 이름의 정자를 만들어 강학 활동을 하였다.<sup>37)</sup>

정치권력이 개혁을 시도할 때 반개혁적 저항에 대한 통제 전략에 따라 다채로운 힘겨루기 양상이 조성된다. 사회 개혁의 선봉에 선 조광조는 홍경주(洪景舟), 남곤(南袞), 심정(沈貞), 김전(金詮) 등 주요 대신이 중심이 된 반대세력의 대항으로 1519년 기묘년, 봉당을 조성해 정치를 어지럽히는 간당죄(奸黨罪)라는 죄목으로 유배령에 처해져 전라도 능성(綾城)으로 떠났다. 중앙에서 먼 능주로 유배 가는 길은 정치적 야심과 지략, 풍류를 즐기는 낭만 등 모든 꿈을 버린 비움의 길이었고, 조광조는 자신을 ‘화살 맞은 새’, ‘말을 잃은 노인’으로 비유하면서 당시의 처지를 비판하였다.<sup>38)</sup> 능주에 도착해 관노(官奴) 문후중의 집에 기거한 지 20일 만에 사사(賜死)된 조광조의 흔적은 적려유허지의 적중가옥(謫中家屋)과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靜庵趙光祖先生謫廬遺墟碑)’<sup>39)</sup>에 남아 있다. 능주는 유배자에게 추방과 단절의 공간이고, 이곳에 머문 시간은 이생에서 죽음으로 삶이 변곡되는 전환기였다.

35) 이종수, 『조광조 평전: 조선을 흔든 개혁의 바람』(생각원, 2016), 284쪽.

36) 최인호, 『유림. 1부1권, 왕도(王道): 하늘에 이르는 길』(열림원, 2005), 229쪽.

37) 16세기 초에 건립된 사은정은 조광조 사후 사라졌지만 300년이 지난 18세기 후반, 조광조의 9대손인 조국인(趙國仁), 이자의 후손 이두인(李斗演), 조광조의 후손 조홍술(趙弘述) 등이 힘을 합쳐 새롭게 만들어 현재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38) 『정암집』, 속집권(續集卷) 1; 박균섭, 『선비정신연구: 삶, 삶, 교육』(문음사, 2016), 266쪽.

39) 1667년(효종 8), 능주 목사 민여로(閔汝老)가 건립하였으며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

조광조와 오랫동안 지란지교(芝蘭之交)한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은 능주로 낙향해 기거하던 외중 정암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그는 조광조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른 후 쌍봉(雙峰) 중조산(中條山) 아래에 죽수사(竹樹祠)라는 사당을 짓고 제향하였는데, 죽수사가 효시가 되어 1570년(선조 3), 조광조의 위패를 모신 죽수서원(竹樹書院)으로 사액되었고, 1630년(인조 8)에는 양팽손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이렇듯 죽수서원은 두 지우(知友)의 교유 흔적이 담긴 곳으로, 죽수서원이 입지한 마을은 조광조를 기렸다 하여 조대감골이라 불렸고, 지금은 서원동길이라는 지명으로 그 유래를 전하고 있다.

20세기 초 외세침탈기에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은 죽수서원 내 '정암 조선생 학포 양선생 죽수서원 유지 추모비'의 비문을 지었고, 조광조 시신을 장례한 묘터인 증리(甌里)에 그를 추모하는 비석을 남겨 인물의 사상과 공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조광조의 생애는 청년 시절의 야심과 낭만을 담은 꿈의 공간으로서의 용인, 그리고 이와는 대조되는 추방과 단절의 공간인 능주로 이어진 '모순의 공간' 속에서 그려진다.

## 2) 기념의 시대: 서원 건립기

조광조는 반정공신 대 신진사류(新進士流) 간의 대립으로 초래된 기묘 사화로 사사되었지만, 사림정권이 출범하는 무대가 마련된 선조대에 와서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고 '도덕이 있고 학식이 넓으며 올바른 도리를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를 받았다.

조광조가 능주에 매장된 이듬해 그의 시신은 선영산소(先塋山所)가 있는 용인 심곡리로 옮겨와 안장되었다. 정암 조광조는 기묘의 변(變)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후 즉각적으로 추모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어려웠고, 한양 조씨 후손도 주변 지역으로 이거하여 기념 공간 조성에는 어느 정도 세월의 흐름을 요했다. 이후 17세기 사림의 시대를 맞아 기호학의 본거지인 경기지역에 심곡서원이 건립되었다. 사림이 주류가 되어 정계(政界)를 이끄는 시대적 조건, 서인(西人)의 권세와 주도적 지위는 기념 공간 조성을 촉진하는 힘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원 제도를 정치적으로 사화(士禍)를 겪으며 침체되어가던 조선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시대적 산물이라고 한다.<sup>40)</sup>

지역은 과거의 모든 유의미한 경험들의 집합으로서 한 집단의 공통 기억(common memory)에 내재하는 메시지를 응축하는 과정을 통해 기념의 대상이 된다. 중심인물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이야기 주인공은 전통 만들기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환되고, 당대 사람들이 주도자가 되어 중심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기념의 대상은 과거 인물이지만, 기념행위의 주체는 당대 사람들이며, 그들의 기억 방식과 추모 수단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기념행위의 산출물이 결정된다. 심곡서원은 조광조의 영혼을 추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해석을 통해 사상적 동류(同類)를 결집시키는 공적 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이야기 주인공은 당대의 이름난 풍운아에서 권세가 꺾여 먼 능주 땅으로 추방되었지만 서원 건립이라는 기념행위를 통해 그 존재를 이어갔다.

서원을 건립하려면 그 지역에서 존숭(尊崇)할 만한 명현(名賢)이 배출되거나 명현의 말년 은거지나 묘소가 있는 곳 또는 귀양지와 같이 일정한 연고가 있어야 한다.<sup>41)</sup> 심곡서원이 자리한 용인은 일찍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풍수적으로도 명당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옛 성현의 자취가 풍부하기로 이름나 이곳을 '예학의 본향', '유학의 성지(聖地)'라고 하였고<sup>42)</sup>, 조광조를 비롯해 그의 조부와 아버지, 그리고 부인 이씨와 아들 정(定), 용(容) 등 모든 가족이 이곳에 안장되었다. 그의 죽음을 결코 삶과 분리된 피안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은 당대 사람들에게 의해 청년 시절의 꿈이 담긴 용인의 사은정, 유배의 객(客)이 되어 흔적을 남긴 능주의 적려유허지와 죽수서원, 본향으로 돌아와 안장된 묘소 등 그의 자취가 담긴 공간에 대한 중첩된 기억이 심곡서원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용인은 한 인물의 영혼의 거처에서 더 나아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장소이자 꿈과 비움이 중첩되는 복합공간으로서 그 인물의 개인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이 수렴되는 장소성(placeness)을 갖는다.

40) 이상해·안장현, 『서원』(열화당, 2002).

41) 조병로(2004), 앞의 논문, 28쪽.

42)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용인군, 1990), 90쪽; 홍순석, 『용인학: 용인, 용인사람들』(채륜, 2013), 181쪽. 용인의 자연적 우수성과 명당으로서의 조건은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즉 '살기는 진천에서, 죽어서는 용인으로'라는 말을 통해 회자된다. 또한 용인은 명현들의 연고지로서 포은 정몽주를 제향하는 충렬서원(忠烈書院), 조선 후기 문신 이재(李穡)를 제향하였던 한천서원지(寒泉書院地) 등이 남아 있다.

사실상 옛 서원은 지방 유림(儒林)들의 활동 근거지로서 동질성의 공간이자 엘리트 문화의 착근지였고, 사림 정치기에는 중앙정계 유력자의 연고가 있을 경우, 지방과 중앙 간 또는 지방 간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더군다나 사림정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17세기에 봉당 활동의 중심적 장소가 됨에 따라 심곡서원은 지식과 공론이 생산되는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 3) 전통의 시대: 의미 창출기

심곡서원은 조선 후기에 기호 사림의 터로 오랜 기간 활용되었지만, 갑오개혁 때 근대 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유학이 쇠퇴하면서 강학 기능의 유지에 위협이 가해졌다. 심곡서원에서는 1901년,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중수하여 한학 강좌를 진행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심곡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1952년에 제1회 졸업생 30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1953년에는 5만여 평의 토지를 치사해 심곡학원 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조광조의 시호(詩號)인 ‘문정(文正)’을 교명으로 하는 문정중학교를 개교하였는데, 학생 규모가 커지자 1958년 2월, 서원 인근에 위치한 지금의 풍덕천에 교사(校舍)를 마련해 이전하였고, 현재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중학교로서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의 변화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서원의 기능 유지에 장애가 되었지만 제향 인물의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학교 공동체를 조성해 강학을 이어갔다.

1933년에는 유림들의 기부로 재력을 모아 오랫동안 퇴락해 있던 사당을 고치고 강당을 새로 지었으며 장서각(藏書閣)을 중수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6·25전쟁으로 67종 486책에 이르는 제반문헌이 소실되었고, 1987년과 1993년 두 차례 도난을 당해 현재 『정암집(靜菴集)』을 비롯해 몇십권만 소장한 단출한 서가를 구비하고 있다. 지금은 몇 차례 복원 수리를 거쳐 강당, 동재·서재, 사당, 장서각, 치사재(治事齋), 고직사(庫直舍) 등 건물 9동을 갖추고 있으며, 조광조가 여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할 당시 심었던 오래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옛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 연고를 둔 유림(儒林)과 유학 애호가들, 문중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곡서원 사람들<sup>43)</sup>은 서원 터가 심곡학원재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증축, 보수 등 현상 변경 시 재단의 승낙을 받아야 해 번거롭고, 재단이 서원의 현대적 계승에 힘쓰기보다는 재산 증식에 몰두해 협력적 파트너 관계가 아닌 투쟁의 대상이 되었음을 호소한다.<sup>44)</sup> 한편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용인시는 활용의 차원에서 서원에 관여하는 가운데 산하의 문화재단, 사회적 기업, 이벤트 기획사 등 각종 기관에 문화재 활용 사업 설계를 위탁하며, 수혜 범위를 지역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설정해 문화재의 공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서원 사람들은 느슨하게 결집된 마을 애호가들의 봉사에 의존해 서원을 지켜나가는 활동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불만이 많다. 일례로 서원의 본래 구조가 ‘살 수 있게끔’ 변경되기를 바라지만 문화재청이 원형 유지를 이유로 ‘태클’을 걸며, 비전문가를 지원인력으로 파견하고 재단의 재정력만큼만 서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시(市)의 형식적 지원이 불만이다. 또한 2011년부터 창작극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조광조의 호(號)를 따서 만든 정암문화제(靜庵文化祭)와 같은 큰 사업에서 조광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고증이 미흡한 채 세부행사를 추진하고, 일회성 축제로 끝내버리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서원 내부에서도 서원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서원 운영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인 원장과 장의(掌議)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목되어<sup>45)</sup> 서원이 ‘생각이 각기 다른 어르신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편 가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 서원 주변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비판하면서 경관의 훼손을

43) 전체 서원 672개소 중 유림이 관리하는 곳이 375개소(65%)이고, 문중은 255개소(38%), 지방자치단체는 10개소, 사단법인 5개소, 학교법인 5개소,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5개소이다. 임영상·정양화, 『향교·서원과 용인사람들』(선인, 2014), 14쪽. 그러나 실제로는 서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44) 심곡서원은 1953년에 5만 3,432평의 토지를 출연해 심곡학원재단을 설립한 후 문정중 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러나 심곡학원이 서원 주변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도해 고층 아파트가 난립하게 되었다. 이후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부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르기까지 줄곧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법적 공방도 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지금은 심곡서원이 보유한 재산으로 토지매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액의 지가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45) 일례로 용인시에서는 정암문화제의 부대행사로 2016년에는 심곡서원 고유제를, 2017년에는 대한민국정암회호대전을 지원했는데, 행사를 선정할 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서원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였다고 한다(용인문화재단 정암문화제 담당자, 2017. 11. 6. 전화통화).

우려하지만,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가까운 곳에서 전통문화를 접하게끔 함으로써 서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기도 한다.<sup>46)</sup> 이곳 윤영기 전(前) 원장(2002-2010)도 비록 사면의 고층건물에 간혀 외형적으로 초라해졌지만, 서원의 본래 역할이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고, 후학 양성과 고을의 미풍양속 진흥이 주된 책무라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바라보았다.<sup>47)</sup> 즉, 도심은 옛 건축을 풍화적 흔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사자(死者)를 담론의 대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서원의 공적 역할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여러 사회공동체 간의 연결망을 형성해 서원이 현재의 필요와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으로 산출되도록 촉진시킨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욕구와 긴장이 상존하는 도시 환경은 그 기능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문화재청·용인시와 같은 정부 영역, 유림집단을 비롯해 서원을 연구·관리하거나 서원 문화재를 향유하는 계층을 아우르는 민간 영역이 당사자가 되어 서원 운영에 개입하고 서원에 오늘날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서원은 조선조에서 정치적 조직이었지만, 근대 격변기를 거쳐 지금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거버넌스(governance)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지금 시대의 서원에서는 공동의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협상·충돌·조정에 의한 복잡작용(administration)이 일어난다. ‘기념의 시대’에서는 서원 공간을 점유하는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된 데 반해, ‘전통의 시대’에서는 각기 다른 이해와 가치를 지닌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서원 전통의 일부로 자리 잡는 가운데 서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동력의 작용으로 규정되는 협의(協議)의 공간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46) 김동욱, 「경기도 지역 서원의 건축특성」,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국학자료원, 2004), 106쪽.

47) 심곡서원, 『심곡서원지』(심곡서원, 2002), 25쪽.

## V. 전통의 보편성 논의

### 1. 서원 전통의 보편적 특징

언제, 어떤 과거를 되살려내느냐에 따라 전통의 실체는 달라진다. 왕조국가의 중앙집권제하에서 사액(賜額)은 국가의 시혜(施惠)이면서 동시에 공간의 서열화를 통해 서원에 권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액을 서원의 중흥이자 제2의 창건으로 여겼다.<sup>48)</sup> 지금은 정부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서원의 가치를 공식화하는데, 심곡서원도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가 된 데 이어 2015년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한국의 대표적인 서원으로서 격이 높아졌다.<sup>49)</sup> 한편 과거의 서원이 지방 사람들의 구심체로서 엘리트 문화이자 동질성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서원에는 유사(儒士), 장의(掌議)와 같은 옛 서원 조직의 직제가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유도회(儒道會) 활동가나 문화재 애호가들이며, 이들이 지역 주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원의 지지 세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서원은 지역에 기반한(local-based) 지역공동체 문화의 일부분을 이룬다.

한편 현재 서원에는 선현제향(先賢祭享) 기능만 남아 있고 장수강학(藏修講學) 기능은 매우 약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복구하여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sup>50)</sup>, 심곡서원을 둘러싼 여러 집단은 각자의 이해(understand)와 아이디어에 따라 서원 활용 방식을 제시한다. 예컨대 제향과 강학은 서원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며, 지금도 일부가 옛 방식대로 이어져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향사(享祀)를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체험을 통해 인물을 추앙하도록 하는 등 전통 요소의 활용을 전통의 일환으로 다루고, 강학 역시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과

48) 조병로(2004), 앞의 논문.

49) 2011년 12월, 소수서원(紹修書院), 남계서원(藍溪書院), 옥산서원(玉山書院), 도산서원(陶山書院), 필암서원(筆巖書院), 도동서원(道東書院), 병산서원(屏山書院), 무성서원(武城書院), 돈암서원(遯巖書院) 등 9개 서원을 '한국의 서원'으로 구성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였다. 심곡서원이 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 1월 28일에는 국가사적 530호로 지정되어 그 격이 높아지자 심곡서원 관계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사적 지정을 받은 자운서원(紫雲書院), 옥동서원(玉洞書院)과 함께 '한국의 서원' 잠정목록에 추가(확장)시키려는 시도를 추진하였다.

50) 임영상·정양화(2014), 앞의 책, 15쪽.

방식으로 채워진다. 또한 심곡서원에서는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를 내용으로 하는 육예(六藝) 놀이를 개발해 전통문화 수요의 충족을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하에 '선비마을조성계획'을 세워 서원을 전통문화 향유의 구심체로 삼음으로써 글공부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한 전통학습의 장으로서 그 기능의 확장을 시도한다. 한편 서원 사람들은 조광조 서거 500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기념공원을 조성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자 하며, '용인시 내 천주교 손골성자-불교의 서봉사 터-유학의 심곡서원'을 연결하는 종교 벨트 조성, 그리고 '심곡서원-민속촌-에버랜드'를 연계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계획을 구상한 바 있다.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전통 만들기의 주체가 되어 서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버넌스적 상호작용을 통해 심곡서원은 협의(協議)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또한 심곡서원은 지역 차원에서는 용인에 입지하지만, 공간의 측면에서는 서원 전통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전통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유산이다. 이렇게 서원은 현대적 도시 공간, 민주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통으로 착근된다. 한편 심곡서원이 건립되는 전후의 시대에서는 유교 가치의 생산과 공유가 서원 존립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전통은 현재 삶의 주인공들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자 집단 경험이므로 서원 사람들이 취하는 서원의 유지·운영·활용 등 일련의 활동 역시 전통 만들기의 일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이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여러 가지 변화도 유산의 지금 모습에 투영되므로 그 형성 과정 역시 가치의 일부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51)</sup> 따라서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보편성은 서원의 건립취지와 목적에 담긴 유교정신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전통의 보편성

지난 수십 년간 전통에 대한 수사적(rhetorical) 구호가 난무하였고,

51) 조효상, 「세계유산협약의 기초개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70쪽.

개별 전통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현재의 모습에 치중하여 ‘전통이 지니는 보편적 특질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였다. 또한 전통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옛것을 복원·복구하는 물리적 차원의 정책이 전통문화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추진되었고, 비물질적 요소가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일각에서는 즉물적 복원과 재구성, 그리고 상정된 본질을 조형적으로 고정하려는 시도가 전통을 더욱 모호한 것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다.<sup>52)</sup> 전통이 과거에 기원을 두되 현재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면 전통이 지니는 여러 속성을 과거와 현재의 영역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전통과 관련된 ‘계승’이 가지는 ‘연속’이라는 이미지는 마치 전통이 그 기원에 담긴 핵심요소를 끊임없이 이어와야만 한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실상 전통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유·무형적 산물은 분절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므로 계승, 분절 모두 전통으로 수렴되는 과정이자 전통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라봄이 타당하며<sup>53)</sup>, 전통의 기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나타난 전통의 요소를 포착하는 것이 전통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절한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연속성보다는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단절의 괴리를 매우는 창발적 사유가 진정한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54)</sup>

한편 분화된 사회에서 지배적 전통은 매우 상이하고, 전통에 대한 대응 역시 선택적이다.<sup>55)</sup> 그러나 전통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전통을 공유하는 사회에서의 인정과 합의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재 지정과 관리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sup>56)</sup>, 거버넌스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전통문화 기능의 변용을

52)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동녘, 2013), 708쪽.

53)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 39권(2011), 325쪽.

54)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2013), 앞의 책, 710쪽.

55) E. Shils(1981), 앞의 책, 44쪽.

56) A. Riegl, *Der moderne Denkmalkultus, sein Wesen und seine Entstehung*(Braumüller, 1903; 알로이스 리글 저, 최병하 편역, 『기념물의 현대적 숭배』(기문당, 2013), 4쪽.

시도하는 가운데 그 정체성을 이어가므로 전통 만들기 주체의 확대는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을 담보한다.

여러 견해를 종합하자면 전통의 보편성은 내용, 과정, 대상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우선 어떤 전통이 보편성 담론의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통이 내용 면에서 중요성(significance)을 가져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전통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소재를 담고 있거나 희소하거나 현재의 삶에 유용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인식되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에 명기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서 '보편적'이란 그 유산이 탁월하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탁월함이 보편성의 전제가 된다. '보편적'이란 용어는 자신이 속한 문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에 적용되는 개념<sup>57)</sup>이라는 주장도 내용상의 중요성이 뒷받침되어야 보편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내용 면에서의 보편성은 다분히 규범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전통의 보편성은 과정상에서 민주성이 갖춰져야 성립된다. 여기에서 민주성은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힘의 원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전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전통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환경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전통의 보편성은 대상의 측면에서 통용성(mobility)이 있어야 한다. 전통이 통용된다는 것은 종적으로는 전통의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어짐을 의미하고, 횡적으로는 그것을 공유하는 범위의 확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전통이 현재에 적응하도록 변화되고 사회공동체에 수용되며, 각기 다른 특수한 것들이 그 전통을 공유할 때 통용성을 갖추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의 중요성과 절차상의 민주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의 보편성은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전통으로서 여러 개별 전통을 두루 설명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며 사회공동체의 자율적인 해석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전통의 속성을 의미한다.

---

57) UNESCO,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UNESCO, 1978).



##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인 심곡서원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오늘날 서원 전통의 실체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의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곡서원은 도시에 입지하고, 서원 건물을 비롯해 용인·수원·평택 일대의 토지와 상가건물을 보유하는 등 비교적 재정력이 높으며, 지역에 연고를 둔 유교 및 문화재 애호가들이 서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특이점을 지닌다. 더군다나 서원은 지역별·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곡서원을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성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주변적이거나 소외된 대상, 연구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변방 영역을 탐구하는 데 적절하며, 여러 사례를 통합해 분석하는 경우, 오히려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주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또한 하나의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상황과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함정에 빠지면 오히려 방법론적 강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한편 서원 연구에서는 자료의 소실과 현존 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고증이 서원의 역사적 경험을 기술하는 데 제약조건이 된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자(narrator)의 인식세계의 흐름을 통해 기술할 수 있고, 개별 스토리를 구성하는 이야기 항목 간의 조합을 통해 전체 줄거리를 엮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을 조망하게끔 해준다. 전통을 논하는 데 스토리(story)를 말하는(telling) 방식이 중요한 이유이다.

유교의 강한 규범주의는 유교문화 유산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접근을 제약하였다. 심곡서원의 경우에도 서원 건축과 조영(造營), 학규를 통한 서원의 강회 양상과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제향인물인 조광조와 관련해 그의 사상과 지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시공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서원에 접근한 시도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향인물과 서원 공간에 대한 분절적 접근, 서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관계망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유발되는 서원 연구의 빈틈을 이야기 진술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서원의 전통성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였다.

‘전통 만들기’는 전통이 과거로부터 축적된 시간과 후세가 부여한 가치를 함축한다는 데 착안한 분석틀이므로 홉스봄(Habsbawm, Eric J.)이 개념화한 ‘만들어진 전통’과 같이 의도적이거나 작위적이지 않다. 서원은 유교정신에 기원을 두지만, 유교가 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과거의 환경이 변화된 지금, 서원의 본래 기능에 천착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가치를 이어가는 ‘전통 만들기’ 현상을 통해 서원의 전통성을 추출하는 것이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욱 적절하다. 특히 전통의 해석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작용은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의 보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므로 전통의 보편성도 결국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력이 부여되는 시대적 산물인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균섭, 『선비정신연구: 삶, 삶, 교육』. 문음사, 2016.
- 심곡서원, 『심곡서원지』. 심곡서원, 2002.
- \_\_\_\_\_, 『심곡서원 고증자료 보고서』. 심곡서원, 2013.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 용인군지편찬위원회, 『용인군지』. 용인군, 1990.
- 용인시, 『용인 심곡서원 고증자료조사』. 용인시, 2016.
- 이동희, 『유교문화의 전통과 미래』. 문사철, 2011.
- 이상해·안장현, 『서원』. 열화당, 2002.
- 이종수, 『조광조 평전: 조선을 흔든 개혁의 바람』. 생각정원, 2016.
- 이호일,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 임영상·정양화, 『향교·서원과 용인사람들』. 선인, 2014.
- 조광조 저, 조종업 역, 『정암선생문집(수정재역)』. 경인문화사, 2004.
-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 최영준,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 최인호, 『유림. 1부1권, 왕도(王道): 하늘에 이르는 길』. 열림원, 2005.
-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 현판과 기문』.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2.
- 홍순석, 『용인학: 용인, 용인사람들』. 채륜, 2013.
- Beck, Ulrich & Giddens, Anthony.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 Po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Riegl, A. *Der Moderne Denkmalkultus, sein Wesen und seine Entstehung*. Braumüller, 1903; 알로이스 리글 저, 최병하 편역, 『기념물의 현대적 숭배』. 기문당, 2013.
- Shils, E., *Tra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UNESCO,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1978.

## 2. 논문

- 김정은, 「은퇴한 공직자의 리더십 형성요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호의 '진화적 리더십'에 대한 스토리텔링 분석」. 『한국행정정보』 46권 2호, 2012, 369-393쪽.
- \_\_\_\_\_,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개념화: 한국 전통가문의 집에 대한 해석」. 『정신문화연구』 39권 4호, 2016, 8-37쪽.
- 김기덕, 「문화원형의 층위(層位)와 새로운 원형 개념」. 『인문콘텐츠』, 2005, 55-74쪽.
- 김동욱, 「경기도 지역 서원의 건축특성」.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국학자료원, 2004, 85-106쪽.
- 김인철, 「한국성」. 『건축평단』 통권 4호, 2015, 6-13쪽.
- 김철준, 「문화전통의 이해」, 『정신문화』 통권 1호, 1978, 6-9쪽.
- 김현구,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 서구보편주의를 넘어 다원보편주의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17.
- 백종현, 「개념」. 『철학과 현실』 24권 1호, 1995, 298-304쪽.
- 엄정식, 「상징에 관하여」. 『철학과 현실』 96호, 2013, 197-221쪽.
- 용인문화원, 「용인시 도시 성장과정과 앞으로의 도시 관리방향에 관한 소고」. 『용인문화』 제35호, 2015, 26-27쪽.
- 윤건수, 「기초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지역축제: 함평 나비축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40권 4호, 2006, 77-100쪽.
-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 인식」. 『비평문학』 39권, 2011, 323-345쪽.
- 전라희,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9권 2호, 1995, 455-484쪽.
- 조병로, 「한국 서원의 발달과 그 성격」.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국학자료원, 2004, 19-34쪽.
- 조인수, 「한국 전통미술의 재발견」. 전통문화연구소, 『전통-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사, 2010, 124-153쪽.
- 조효상, 「세계유산협약의 기초개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소인, 「공통 감각: 규범적 보편성인가 보편화 가능성인가」, 『해석학연구』 12권, 2003, 399-577쪽.
- 최홍규, 「경기지역의 서원 건립 추세와 기호학파의 학맥」.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의 경기지역 서원』, 국학자료원, 2004, 35-62쪽.

Feldman, Martha S., Sköoldberg, Kaj, Brown, Ruth Nicole, & Honer, Debra.  
“Making Sense of Stories: A Rhetorical Approach to Narrative Analysi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14(2), 2004,

pp. 147-170.

Koh, Yong Bok. "Traditionalism and De-Traditionalism." *Korea Journal*, Vol. 17(5), 1977, pp. 39-48.

Lim, Jae Hae. "Tradition in Korean Society: Continuity and Change." *Korea Journal*, Vol. 32(3), 1991, pp. 13-30.

### 3.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

메리엄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com/dictionary)

## 국 문 초 록

한국의 서원(書院)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 공간으로서 유교 전통의 집체(collection)로 인식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서원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이란 사회적 맥락과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현대적 면모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도시에 위치한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에 조선시대 서원은 정치적 파란과 시대적 부침에 따른 역사적 변곡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를 기술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과거의 환경이 변화된 지금, 서원의 본래 기능에 천착하기보다는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가치를 이어가는 현상을 통해 서원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에 기초해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현된 가치 함축적 요소를 반영한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이어서 심곡서원의 주향자(主享者)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삶을 서원 공간과 연결하고, 서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를 구축해 서원 전통의 보편적 특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보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는 ‘인물의 생애(조광조 연대기)’, ‘기념의 시대(서원 건립기)’, ‘전통의 시대(의미 창출기)’의 흐름을 통해 전개된다. 각 시기에서 서원은 ‘모순의 공간’, ‘정치적 공간’, ‘협약(協議)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전통 만들기 주체는 인물, 당대 사람들, 국가·사회로 확장된다. 특히 ‘전통의 시대’에서는 서원이 국가에 의한 공식화 과정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에 의해 현재적 해석이 더해짐에 따라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이야기의 중심소재인 심곡서원은 도시라는 특유의 공간적 조건, 그리고 민주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통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보편성은 서원의 건립 취지와 목적에 담긴 유교 정신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전통의 보편성은 사회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전통으로서 여러 개별 전통을 두루 설명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사회공동체의

자율적인 해석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전통의 속성이자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시대적 산물이다.

**투고일** 2017. 12. 20.

**심사일** 2018. 1. 24.

**게재 확정일** 2018. 2. 26.

**주제어(keyword)** 전통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radition), 한국의 서원(Korean Seowon), 심곡서원(Simgok Seowon), 조광조(Jo Gwang-jo), 스토리텔링(storytelling)

## Abstracts

A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Universality of Tradition:  
Analysis of the Making Tradition of Korean Seowon  
**Kim, Kyung-eun**

Korean Seowon, a space for memorial rituals and study, have been recognized as the collective body of Confucian traditions. Recently, people are focusing on the meaning and value of Seowon, on the belief that they embody universal value of human.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tradition is the product of social context and conditions of the time, this article traces the process through which Simgok Seowon, located in the city believed to most visibly which (is) embody contemporaneity, established itself as tradi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n Seowon have existed through the turbulent history of political rivalry and tension, this study applies storytelling as a tool for analysis. This article also tries to analyze Simgok Seowon using a value-based framework in which not only the original function of a peculiar tradition but also its physicality and spiritual value are simultaneously appreciated. This research connects the life of Jo Gwang-jo, the main occupant of Simgok Seowon, with the seowon space and establishes the story of 'Making the Tradition of Simgok Seowon' based on the interactions among the people related to the seowon in order to draw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seowon tradition, and discuss the universality of tradition. 'Making the Tradition of Simgok Seowon' progresses in three stages: 'the chronicle of Jo Gwang-jo', 'the establishment of Simgok Seowon', and 'the period of signification'. As each stage passes by, Simgok Seowon comes to have a meaning of "space of irony", "space of politics", and "space of discussion" respectively, and the subject of making tradition was expanded from an individual character to contemporaries, and to the country and community. Particularly, in 'the period of signification', as it was made official by the country, the seowon acquires authority, and as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are added by the governance between country and civil society, it comes to obtain legitimacy as a tradition. In other words, Simgok Seowon became a tradition based on its spatial condition of urban location and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become universalized. Therefore, it is more valid to regard the universality that Korean Seowon are equipped with as the common feature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ir becoming tradition rather than the Confucian spirit itself that dictated their foundational purpose and goal. In conclusion, the universality of tradition refers to the aspect of tradition that can explain several individual traditions within a culture. It is also the aspect of tradition that the community members think as important, and obtains legitimacy by the social community's autonomous interpretations.